

김남로에서

김동영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미 국산 쇠고기 '파문'과 관련, 정부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다.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립 서비스' 차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머슴론' 진정성 있나

력도 뛰어나 흔히 '불도저'에 비유되고 있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결정한 사안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실패한 아마추어 정권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을 지는 의문이다. 머슴처럼 국민의 뜻을 살펴며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을 느끼는

가는 부정적이다. 아마추어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며 국민에게 솔한 실망을 안겨 주었다.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며 '검역주권'까지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러나듯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며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80%대 초반, 60%대 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현실 인식은 한가한 것 같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길을 가다보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고, 다른 참모는 "앞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고 낙관했다고 한다.

5년의 임기는 결코 길지 않다. 집권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명박 정부도 영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설실장〉 dykim@kwangju.co.kr

시설

혁신도시 뒤흔드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선(先) 민영화, 후(後) 지방 이전' 정책을 확정함에 따라 혁신도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지방으로 오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다. 공공기관 민영화가 지방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공기업에 좋은 구실을 주는 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공기업의 개혁안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광주·전남공통혁신도시의 경우 정부 개혁안이 시행되면 이전 대상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4~5개 기관의 입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민영화와 공공기관 민영화 중 어느 것이 국가발전에 시급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방안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깊게 할 뿐이다.

여수엑스포 4년의 노력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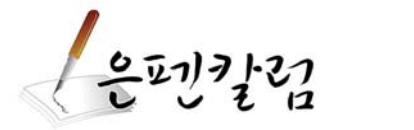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4년을 앞두고 어제 여수에서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간 여수신항 일대에서 열린다. 152개 회원국을 가진 세계박람회기구(BIE)의 공식행사인 만큼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준비위원회는 BIE의 박람회 인정신청서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준비 계획이 승인 받아야 개최국으로서 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백강화



조류독감이 창궐해도 광우병 의심 소고기가 대책 없이 수입되어도 정부에서는 "안심하고 드십시오"만 외친다.

차 모르는 건지. 광우병 사태 또한 그야말로 일과판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불신' 안심하고 먹긴 좀 그래요

들 자화자찬하고 끝내버린다. 물론 한 두 번 정도는 잘했으니 잘했다고들 하겠지 하고 속을 수 있지만 이제의 자부능대가 왔다고 장난치다 당한 '양치기 소년'마냥 신뢰할 수가 없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현 부자 내각들은 아무리 비싸도 순수 국내산 소고기만 고집할 게 분명하다.

은펜클럽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승일



요즘 광주에서는 연주회마다 '해설'이라는 게 등장. 음악에 군더더기가 끼어드는 공해가 심상치 않다.

예술음악은 그 음악을 알아들을 수 없다면 단지 감상적으로, 막연히 느끼기만 할 뿐, 그 음악의 모든 가치를 만날 수 없다.

음악도 알아야 들린다

건 작곡가나 연주자에게 실례가 되는 일은 아닐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해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음악이 지극히 추상적인 예술이라 누구나로부터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데서 비롯됐을 것이다.

으로서 배워간다. 마찬가지로 음악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음악에 대한 체험이 쌓이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귀가 뜨고 클래식음악을 알아들 수 있게 된다.

축산농 두번 죽이는 전근대적 유통망 개선해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산지 소값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값 폭락은 정부의 대책이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산 농가들로부터 의견을 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만 하더라도 소수 농가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유통질서 해치는 '땡처리' 가짜·저질 상품 투성이
도심의 빈 점포를 며칠간 임대해 일명 '땡처리' 하는 의류 도매업자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크다.

▲김현우·광주시 남구 방림동

Advertisement for 'Nongju' (無等鼓) featuring a cartoon characte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newspaper, list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